

第23回 讀書週間記念 세미나 主題發表

出版文化의 振興策

李 恒 寧  
弘益大學校 總長

1. 出版文化의 重要性

요즈음 電波文化가 急速하게 發展되어 그것이 出版文化에 代替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人類의 文化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電波文化에는 限界가 있어 眞正한 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은 역시, 出版文化라고 생각된다.

電波文化가 文化를 大衆化시킨 功勞는 크지만, 電波文化는 能動的인 文化라기 보다 受動的인 文化요, 生産的 文化라기 보다 消費的 文化요, 知性的 文化라기 보다 感性的 文化요, 생각하는 文化라기 보다 떠들석하는 文化이기 때문에 우리는 眞正한 文化를 發展시키려면 出版文化가 發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電波文化가 人間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電波文化만 가지고서는 人間의 思考力을 發展시키는데에는 不足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社會에 여러가지 病弊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病弊는 人間이 너무 行動에만 置重하고 思考를 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파스칼의 말과 같이 人間에게서 思考能力을 빼면 虛弱한 갈매에 不過한 것이요, 思考力 없이는 도저히 다른 生物과 生存競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오늘날 人間이 차차 脫思考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은 人類全體의 運命을 위해 슬퍼할 일이다.

나는 오늘날 人間의 思考力을 恢復시키는 方案은 終局 出版文化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出版文化의 重要性을 새삼 強調하고자 한다.

2. 出版文化의 振興策

가. 精神文化 尊重의 風土造成

物量至上主義의 風潮는 人間을 畸型化시키고 終局에 가서는 人間을 動物化시킬 우려도 있다. 人間이 人間다운 것은 다른 動物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精神文化를 가진데 그 精神文化를 培養하는 것은 바로 出版

文化다.

精神文化는 바로 國力의 土臺가 된다. 흔히 國力이 伸張될 때를 기다려서 精神文化를 發展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먼저 精神文化가 發展되어야만 國力이 伸張된다는 것은 東西古今의 歷史가 證明하는 바다.

爲政者는 勿論이요 國民全體에 걸쳐서 精神文化를 尊重하는 風土를 먼저 助成하여야만 비로소 着實한 國家發展을 期待할 수 있다.

나. 精神文化 創造者의 優待

物量爲主의 社會에서는 精神文化 創造者는 冷待를 받기 쉽다. 學術과 藝術의 著作者들도 物量爲主의 社會에서는 그 社會의 地位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데 어떤 民族을 永久하게 歷史上 살아남게 하는 것은 바로 精神文化의 創造者들이다. 東西古今의 많은 國家와 民族의 興亡 盛衰가 있었지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人類의 歷史에 살아 남은 것은 오직 精神文化의 創造者들 때문이다.

그러한 精神文化의 創造者로서의 著作者의 地位는 確保되어야 하고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優待되는 風潮가 이룩되어야만 한다.

다. 讀書人口의 擴大

電波文化의 影響으로 讀書人口가 減少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電波媒體를 통해서 教養이나 知識을 얻었다 하더라도 書籍을 통해서 再確認하지 않으면 그 教養과 知識이 不確實하고 또 永續하지 못한다.

近年에 國民經濟의 發達로 많은 餘暇가 생겼는데 그 餘暇를 善用하는 方途를 몰라서 여러가지 社會問題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때에 讀書하는 習性을 길러 주어 餘暇도 善用되고 教養과 知識을 넓히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必要가 있다.

讀書人口를 擴大시키려면 古典이나 新刊書籍들을 많이 紹介하는 機關이 必要하다.

新聞, 雜誌 등은 勿論 電波媒體를 통해서도 친절한

讀書案內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 圖書館의 擴充

우리나라의 圖書館은 아직도 貧弱한 形便을 免치 못 하고 있다.

各級學校의 圖書館, 公共圖書館, 各機關의 圖書館, 마을文庫등이 많지만 아직도 圖書館과 藏書量이 不足하므로 圖書館의 擴充이 時急하다.

國家나 公共團體에서 이 方面에 많은 豫算을 投入하여야 한다.

마. 出版事業의 育成

讀書人口가 그다지 많지 않은 오늘의 實情이니 우리나라에서 出版事業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危險을 覺悟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出版事業에 대해서는 特別한 支援이 必要하다. 外國에서는 몇대를 내려가는 出版業

者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出版界의 浮沈이 심해 아직도 出版事業은 자리가 잡히지 않은 實情이다.

近者에 이른바 檢認定教科書 波動으로 많은 出版業者들이 困境에 빠져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出版事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들이 빨리 本來의 事業에 精進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바. 圖書館供給體系의 確立

우리나라의 圖書供給은 書籍商을 통한 正常的인 通路보다도 暗市場, 外販등의 非正常的인 通路가 많아서 書籍을 購讀하는데 支障이 있다.

가령 必要한 書籍을 購入하기 위하여 어떤 書店에 들어가보면 그 必要한 書籍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必要한 書籍이 具備되어 있는 完全한 書店이 좀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會費再調整(引上)에 관한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土전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根本政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今年度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78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되었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다.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不可避한 會費引上 措置를 깊히 理解하시어; 전폭적인 協助와 後援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會費案內 (78年度부터 施行)

團體會費 : A	급	年	70,000원
	B	급	50,000원
	C	급	35,000원
	D	급	10,000원
	E	급	5,000원

個人會費 : 年 2,000원